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05년 1월 25일(화) 14:0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법국민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05년 1월 25일(화) 14:0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법국민원위원회

국가폭력피해자 증인대회 식순

1 증인대회 개최선언

2 사회 : 박석운(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3 내빈소개

4 여는말 : 오종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강창일(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대표)

5 인사말 : 김태홍(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손봉숙(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6 증 언 : 여운형 암살 사건 - 증언자 이기형 선생

진보당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 증언자 조호정 선생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 살인 사건 - 증언자 조용준 선생

김장길 조작 간첩 사건 - 증언자 김장길 선생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 증언자 심진구 선생

일제강점기 피해 사례 - 증언자 박기훈 선생 (원폭피해자협회회장)

7 질의응답 시간

8 마무리 말씀 :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2002/1/15

< 목 차 >

여는말

국가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면서 - 오 종 렬 1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하여 - 강 창 일 2

인사말

과거사 청산과 국민통합, 오로지 진실규명 뿐입니다 - 김 태 홍 4

가려진 진실과 숨겨진 공과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 이 상 열 5

과거청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과업 - 이 영 순 6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에 붙여 - 권 오 현 8

과거청산의 싹을 틔우자 - 정 종 열 10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거청산 - 변 연 식 11

증 언

● 여운형 암살 사건 13

아! 60년만에 세상이 바로잡히는구나! - 이 기 형 15

● 진보당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25

아버님에게 씌워진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기고 - 조 호 정 27

●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 살인 사건 33

516 군사 쿠데타 첫 번째 희생자 - 김 자 동 35

● 김장길 조작간첩 사건 41

제발! 내가 간첩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다오 - 김 장 길 43

●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57

간첩소리 나올 때까지 더 족쳐! - 심 진 구 59

국가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면서

오종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생겨나서 많고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가장 서럽고 원통한 일은 굶주리고 버림받고 사람대접 못 받는 일 일 것입니다. 사람노릇 못하는 일 일 것입니다. 사람인데도 사람 아닌 이런 저런 몹쓸 것들을 총화하면 그게 바로 망국노가 아닐까요? 나라 잃고, 나라 없이 떠도는 상가집 개 같은 자들 말이외다.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그래서 나라마다 반드시 제 영토와 제 국민과 제 주권을 온전히 지키고 잘 가꾸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권력이란 반드시 국리와 민복만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권력, 국리와 민복을 해치는 국가권력, 사람을 사람 아니게 하는 국가권력, 거짓 죄를 꾸며 만들고 사람을 해치는 국가권력이란 꿈에라도 이 세상에 없어야겠고 혹여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나라의 자주독립에 헌신하신 애국가,
점령군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우리 손으로 평화통일 하자시던 애국가,
민중이 열싸안고 더불어 잘 살아갈 그런 민주주의 하자시던 애국가들을 낱알이 겨누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극악한 횡포를 국가권력이 자행했다는데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암매장하고 그 자손들까지 죄인처럼 숨죽이게 하였다는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젓먹이와 무고한 시민까지 합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1백만이 넘게 이어졌다는데, 그 범죄자와 동조자 및 전승자와 후계자들이 나라의 전반에 걸쳐 범죄로 획득한 기득권을 몽땅 쥐고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국가보안법 수호에 명운을 걸겠다는 세력이 과거청산법과 사립학교법개정과 언론개혁입법과 매국적 한일협정진상규명을 몸으로 막아서는 세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데 말할 수 없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하여

강창일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대표

과거청산은 민족적 역사적 당면과제입니다.

2005년은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그리고 한일협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묵은 오욕의 역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어찌 반만년 역사를 영위하는 세계 문화민족이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 60주년을 맞아 이제야 친일 잔재 청산과 부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제 강점 식민지배가 끝나자마자 민족분단이 초래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으며 부일반민족행위자가 주도하는 반쪽 정부 수립에 이어 결국에는 군사독재정권이 30여년 이상 지속됨으로써 친일잔재 청산 실패는 물론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생명 신체 재산권 침해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으로 얼룩진 100년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여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정통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민주화과정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 제주43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과 기념 위령사업 그리고 역사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거청산의 대상과 범위는 부일반민족행위와 강제동원, 한국전쟁전후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의 인권유린행위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왜곡 은폐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들입니다.

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어렵는데 왜 지금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올바른 과거 청산이야말로 민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경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경제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거 청산이 국론분열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 60년간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심화된 것입니다.

과거청산은 국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과업이므로 진상규명 기구는 당연히 충분한 조사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진실규명과 화해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과거 청산을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나 역사학자에게 맡겨서 역사를 연구 평가하게 하자는 것은 국가의 직무포기이며 과거청산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로 과거 청산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과거 청산의 우선적 과제는 철저한 진실규명입니다.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하고 가해자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배제하는 한편 기념 위령사업과 교육 등 화해조치를 통하여 국민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청산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올바른 과거 청산은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청산과 국민통합, 오로지 진실규명 뿐입니다.

김 대 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쳐 온 우리의 역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로 숱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폭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용서와 화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처의 흔적 또한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제주 4.3항쟁 피해자에 대한 신원문제가 구체화 된 것은 커다란 역사의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크고 작은 시도들은 늘 미진한 구석을 남기고 제대로 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끝을 맺고 말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던 국가폭력의 진상은 아직도 여전히 음습한 곳에 은폐되고 왜곡된 채 사회통합과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사법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의 저항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천박한 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과거청산, 용서와 화해는 오직 진상규명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려진 진실과 숨겨진 공과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이 상 열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정부가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훈장을 서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좌익'이라는 이유로 항일운동의 공적들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반세기 넘게 흘러온 우리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특정한 집단과 사람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진실과 숨겨진 공과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우리 역사의 전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남북분단과 이념갈등으로 그 공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념이라는 굴레에 덧씌워져 역사적 평가마저 유보되어야만 했던 아니 평가절하 되어야만 했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새로운 역사의 정립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는 이념에 가려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던 사실들과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가 검토되었으면서도 군사정권에 의해 악용되어 민주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켜 우리 역사의 질곡으로 작용했던 국가보안법과 이로 인해 역사적 평가마저 유보 되어야만 했던 인물과 사실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며 이 행사를 준비하신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회장 강창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청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과업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우리의 현대사에는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앞세운 국가로부터 혹독한 탄압과 죽임을 당해야 했던 통한의 세월이 묻혀있습니다. 또한,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려고 무던히도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또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 했던 서슬 퍼런 세월도 담겨있습니다. 그와 같이 민주와 통일, 해방의 길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아냈던,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위정자들도 그 애증의 세월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지난 시절의 이야기라고 고개를 내 젓기도 합니다. 시대가 빚어낸 불행이라고 가벼이 넘기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고 그 죽음의 진상 조차도 알 길이 없는 부모들은 그 끝 모를 슬픔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의 분노를 키워가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기억과 혼란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두운 독재의 긴 터널을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어렵게 뚫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민주화와 기본권도 사실은 앞서 나아갔던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던들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지향한다는 노무현 정권 또한 그 시혜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질곡의 역사와 단절하는 그 첫걸음은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적 유산과의 완전한 결별이며, 인권국가로서의 완성은 철저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춰내면 아픈 과거의 역사를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국가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를 규명하는 일은 지난 시대의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정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성숙한 사회라면 과거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여겨지는 건강한 사회라면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청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해서 기필코 “과거청산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아무리 수구보수 세력의 방해와 저항이 거세어도, 과거청산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수구보수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결연하게 맞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에서 피의 증언을 해주신 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비상한 결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과거청산의 대업을 이루어 내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더 이상 한의 역사가 아닌 이데올로기의 왜곡된 공세의 종결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청산법 제정으로 올바른 과거청산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에 붙여

권오현

민간협양심수우원회 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이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자유·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선언이 규정한 인권조항들입니다.

이밖에도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여 모든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인권장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정의·평화·인권과 사회복지 등 국가의 존립근거가 되는 본래의 기능과 지향과는 달리 억압과 탄압이란 질곡의 역사를 이어 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외세에 의한 분단과 냉전체제 그리고 잇단 권위주의 정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이 되고 그 감격의 순간 우리겨레는 뜻하지 않았던 외세에 의해서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을 강제당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점령군은 일제의 통치수단이었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친일반역자들을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공간 가장 큰 민족적 과제였던 자주독립통일 국가건설과는 정면 배치되는 역사의 반동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상·이념을 넘어 하나의 자주독립통일국가건설을 지향했던 민족자주세력은 실 곳이 없었고 테러를 당하거나 불법화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은 바로 외세를 등에 업고 분단을 악용,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세

력을 탄압하였습니다. 여운형선생에 대한 테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권력의 폭압통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두 법은 이른바 좌익척결과 사상통제, 분단고착, 독재를 강화하는 반인권·반민주·반민족 악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한 해 동안 118,000여명이 입건·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 당했습니다. 이 법 제정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내세운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통일세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4월혁명 뒤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인사들은 박정희 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또 다시 탄압받고 학살당했습니다. 조용수 민족일보사장, 최백근 사회당 지도간부 등에 대한 사형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영구집권을 노린 유신체제에 항거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 남민전 관련 지도부 또한 사법살인 당했습니다.

국가폭력의 또 다른 형태는 감옥에서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안전법, 사상전향제도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악법과 제도가 그것입니다. 감호처분, 주거제한 보호관찰에 그치지 않고 강제전향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 등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문명적 야만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일제식민지잔재청산 수구냉전체제해체와 함께 그 수단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국가폭력의 피해자 증언을 계기로 철저한 과거청산과 모든 의혹사건이 진상규명되어야 하고 그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외세의 지배간섭이 없는 자주와 통일, 문명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청산의 싹을 틔우자!!

정 종 열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상임의장

과거... 사람이면 누구나 또한 어느 사회나 과거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걸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닙니다. 과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이해관계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후에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거듭된 잘못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밝혀진 한일협정 사태에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회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 회귀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 길목이요,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그 전초의 방법으로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청산의 당위성을 온 천하에 선포합시다. 피해를 안고 살아오면서도 말도 못했음은 물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 냉가슴을 앓아온, 당사자나 유족의 아픔과 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합시다. 그동안 참아온 절규에 함께 동참하여 골수에서 터져 나오는 용어리와 분개를 풀어 주고, 살덩어리를 비집고 새어나오는 북받치는 울분과 토로를 함께 공유합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해의 장을 만들어 갑시다. 진정한 용서는 신원에 기초하고 있음을 각인시켜 주고, 우리가 사는 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원통한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됨을 공고히 합시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과업이 후손에 길이 남을 자랑스런 위업이 될 수 있도록 의연하게 계승해 냅시다.

우리는 오늘,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요,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조명하여야 하며,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호연지기적 가치관임을 정성과 진지함으로 곱게 그리고 바르게 마름질합시다.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 누구에게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굳건하게 싹틀 것입니다. 그 싹을 틔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 금번 증언대회에 참여해 주신 증인 당사자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실무진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들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거청산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최종길교수 의문사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조작간첩 사건 등의 대응 활동을 하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약하여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등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사청산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와 기나긴 독재정권의 세월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옹호하고 추구해야 마땅한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수백 수천의 목숨을 앗아 갔다는 것은 분명 수치스럽고, 분노할만한 일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살릴 수 없고, 피해를 당한 분들의 가슴속에 피맺힌 한을 풀 수 없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칼날아래 있고, 너무나도 명백한 조작사건들의 진상규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공개된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내용은 국가가 얼마나 파렴치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로의 발걸음을 내 디어야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가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시켜 올바른 과거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사회의 과제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시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형 암살 사건

■ 사건개요

1947년 7월19일 오후 1시쯤 근로인민당 당수였던 여운형이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이란 청년에게 피격되어 62세(1886년생)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차 앞에는 트럭이 가로막고 있었고 동행했던 비서가 범인을 쫓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저지했다.

■ 여운형(1886~1947.7.19)

호 몽양(蒙陽). 경기양평출생. 독립운동가. 정치가

1944년 조선건국동맹 조직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1947년 좌우합작운동 추진 중 암살됨.

■ 증언자 이기형

1917년 함남함주출생.

1933년 여운형 등을 만나 조선독립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모색.

각종 재야 민주화 통일운동에 참여.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고문.

시집 『망향』, 『지리산』, 『山河丹心』, 전기 『몽양 여운형』 외 다수

아! 60년만에 세상이 바로잡히는구나!

이기형

분단60년!

200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다.

몽양 여운형 선생이 3.1절을 기해 서훈된다는 신문기사가 나더니 이어 몽양 살해에 관한 증언을 요약해 달라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요청을 받았다.

‘아! 60년만에 세상이 바로잡히는구나!’하는 감격이 가슴을 찔다.

60년 늦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새로이 증언하는 대신 저의 줄거 『여운형평전』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 보내는 바이다.

『여운형평전』 中에서

운명의 날

1947년 7월19일은 몽양이 종언을 고한 비극의 날이다. 그 무렵 몽양은 명륜동 정무묵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비서 고경흠(독립신보 주필)은 약속 시간 9시에 도착했다. 몽양은 고경흠을 대동하고 성북4동 김호의 집을 향해 차를 달렸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재미 조선사정협의회장 김용중과 작별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김용중은 1946년 초 "이승만이나 김구는 너무 늙고 경륜도 영도력도 없는

망명객이므로 그들보다는 자유적이고 민중의 인기가 높은 여운형이 적합한 지도자"임을 강조하여 동년 3월 미국무성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한 정책은 이승만, 김구의 선으로부터 혁신적 지도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령을 미 군정당국에 내리게 한 영향력 있는 실력자이다. 1959년에는 『한국의 소리』라는 저서도 남겼다.(1965년 8월 『경향신문』 해방 20주년 기념논문, 박준규의 「한국의 격랑」에서)

1947년 7월 22일자 『우리신문』에 발표된 고경흠의 담화형식으로 된 기사를 보면, 이날 마지막 만나질 동안 몽양과 김용중과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몽양의 화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몽양은 침울한 어조로 미국측 대표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는 사실과 전세계에 걸친 미·소 대립의 냉전을 관련시키면서 '미소공동위원회(이하 공위)'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경계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적 입장에서 미·소 양측 대표단에 부단한 절충과 교섭을 가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몽양은 만만한 자신으로 미·소양측 대표에 대한 빈번한 접촉과 격려가 '공위' 진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또 더욱 그 방면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미·소 양측에서의 공동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 측이 늘 자기를 의심하는 데 곤란이 있다고 말하고, 미국무성에서는 "여운형은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나 본심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파안일소하였다.

미군 상륙 이래 여운형이 미군에 협조를 거부하였다고 불평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자기의 충고를 하나도 듣지 않고 무절제한 친일파·민족반역자 등용으로 악화시킨 책임은 오히려 이쪽에서 불평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경흠은 몽양의 신변의 위협을 염려하여 당분간 은밀한 장소에 은거하도록 말하였으나 일소에 불이고, 이 위급한 시기에 일신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구국의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공위'에 관한 활동에 전력하는 나머지당(근로인민당)에 대한 모든 일까지도 부위원장들에게 일임하고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작년 이래의 정치적 주장(3당합동 파동-필자)에 대하여 반대하던 동지들도 자기(몽양)의 주장이 옳은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일도 너무 반대가 심하면 결국 타협적으로 쾌락하고 결코 탄압적으로 추진시키기는 싫은 성격이라고 말하였다.

'공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말이 나는 대로 현저하게 새로운 정치정세가 전개될 것이 예견된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략을 다각도로 말하였다.

고경흠은 끝으로 "나는 선생의 현명한 정치적 식견과 원만한 인격을 생각하고 금후 부하된 사명의 지대한 중요성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라고 그때의 소감을 말하였다.

몽양은 계동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난구(만팔)나? 내 들어갈 테니 갈아 입을 옷을 마련해 놓아라. 지금 곧 가마"

김용중과의 환담을 마치고 그곳을 나온 몽양은, 명륜동 정무묵의 집에 잠깐

들른 후 계동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서울운동장으로 갈 생각으로 명륜동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저녁에는 고향 묘골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운동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이 된 것을 경축하기 위한 영국팀과의 친선 축구경기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6월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는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을 결정하였다. 몽양은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되었다.

한편 전화를 받은 장녀 난구는 아버지의 속내의, 와이셔츠와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는 넥타이와 운동장에 입고 가기에 알맞은 양복과 스타킹까지 꺼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 진씨와 아이들도 일주일 동안이나 그리던 아버지의 얼굴과 음성이 곧 문을 열고 들어설 것만 같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혜화동 로터리의 암살자들

몽양이 탄 차가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 과출소 앞에 서 있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달려 나와 몽양의 자동차를 가로막았다. 7월의 뜨거운 태양이 불 눈을 뜨고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몽양의 차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몽양의 일행이 어리둥절 하는 찰나, 두 발의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몽양의 거구가 풀썩 거꾸러졌다. 흉한 하나가 자동차 범퍼로 뛰어오르고 몽양을 향해 건총 두 발을 쏘았던 것이다.

신변 보호인 박성복은 권총을 빼어들고 범인을 추격하였고, 함께 탄 고경흠은 피를 흘리는 몽양을 안고서 원남동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흉탄을 맞은 지 2분도 채 못 되어 워낙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차가 병원에 닿기도 전에 몽양의 맥박 고동은 멈추고 말았다. 흉한이 쏜 탄환 하나가 몽양의 등에서 북

부를, 다른 하나는 어깨 뒤쪽에서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하였다. 그때 시각이 오후 1시였다. 이런 흥변도 모른 채 계동 집에서는 남편의 육중한 발걸음소리가, 아버지의 킬킬한 기침 소리가 이제나 저제나 들릴까 하고 귀에 호롱불을 켜고 기다렸고, 장녀 난구는 아버지가 갈아입을 옷가지를 매만지며 일주일만의 아버지와 즐거운 상봉에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럴 즈음 대문이 젖혀지면서 들이닥친 것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하늘이 와락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소식!

장녀 난구는 이 믿어지지 않는 무서운 순간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대학병원에 달려가 말없이 고요히 누워 있는 아버지의 피 흐르는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애절히 기록하였다.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어떻게 해서 대학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그리고 피에 젖은 말없는 아버지의 앞에 나섰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도 따뜻한 피가 돌아 한 손으로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어주실 것만 같아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고요히 빛나는 흰 수염과 머리를 만지며 그리운 아버지의 얼굴에 뺨을 비벼 보아도... 아,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이다...(『우리신문』, 1947년 8월 8일자에서)

가족에 뒤이어 동생 근농, 윤일과 여러 친척들과 동지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몽양은 아무 말 없이 피에 젖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형님의 뜻밖의 모습에 근농은 통곡을 터뜨렸다.

‘행여나 하고 형님의 손을 만져 보았지마는 차디찰 뿐이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형님, 형님’ 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형님이 일생을 통하여 부르짖어 왔던 혁명의 완수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도 염원하고 노력하던 남북통일과 자주독립 통일정부의 수립을 보지 못한 채, 유언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형님은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다.(같은 신문)

이때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총감이 정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왔다. 책임상 또는 유족 위로차 들렀음이 분명했다. 아버지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던 장녀 난구가 장택상 총감을 보고 마구 소리를 지르며 몇 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나타났느냐?”

장택상 총감은 아무 말도 안하고 묵묵히 듣고만 섰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었다.(당시 몽양의 검시를 담당했던 한격부 박사의 증언)

이날 군정장관 러치 소장과 민정장관 안재홍도 찾아와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정과 유족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다.

가려진 배후의 세력들

근농은 범인과 배후와 경찰관여 여부에 대해서 『몽양 여운형』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 범행은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개인의 고립된 의사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모의와 음모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에는 경찰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경찰이 그것을

목인하였음이 확실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첫째로 형님이 총격을 당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신문사의 것이 아닌 모 단체의 벽보가 나붙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로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했던 형님의 신변번호인 박성복이 진술한 사실을 들 수가 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총소리와 함께 형님이 쓰러지자 박성복은 권총을 빼어들고 범인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그를 경관이 붙잡았기 때문에 범인은 근처인 홍씨 집(혜화동8-1)담을 넘어 도주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기는커녕 도리어 박성복을 검거하여 성복서에 유치하는 한편, 운전사 홍순태를 서대문서에, 그리고 그날 자동차를 동승하지도 않았던 다른 신변번호인 이재황을 동대문서에 유치하고 마치 그들이 매수를 당하여 모살이라도 한 것같이 심문을 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체포되었다고 하는 한지근은 19세의 미성년자라고 하였지마는 외관상으로나 또는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20세가 훨씬 넘는 청년이었음이 틀림없으며, 얼마 후 필자에게 온 투서에 의하면 이 범인의 성은 한이 아닌 김이고, 그의 나이는 25세로서 김영철이라는 조종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범인의 체포 장소도 처음에는 영락정 유평상회라고 하였던 것이(조병옥 경무부 장관과 장택상 수도청장이 공동담화를 발표) 나중에는 신당동 304 신동운 집이라고 발표됨으로써 일반의 의아심을 자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 이외에도 필자의 의심을 굳게 하는 사실이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어쨌든 백주에 사

람의 왕래가 빈번한 혜화동 로터리에서 천인공노할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과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리어 범인의 도주를 방치한 혐의가 짙다는 점 등으로만 미루어볼지라도 처참한 이 사건과 경찰과의 관련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지근은 개성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지만, 이제 와서 불행한 이 사건의 진상과 배후관계가 밝혀지기도 어렵겠고, 또 설사 밝혀진다고 치더라도 돌아간 형님이 다시 살아올 리 만무하니 우리는 다만 형님과 이 민족의 기구한 운명과 불운한 시대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후 1974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 27년 만에, 그동안 한지근의 단독범으로 매듭지었던 몽양의 살해사건의 공범자들이 나타났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따라서 사건 발생 2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공범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때 자수를 희망해 온 사람은 김홍성·김영성 형제와 김훈·유용호 네 사람이었다.

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총지휘는 김홍성, 제1저격수에 한지근, 제2저격수에 김훈, 확인 도피책에 유용호와 김영성이었다.

이렇게 현장 조직이 되어 있었고,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론에 쫓긴 경찰이 자기들을 체포하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경찰과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들을 지휘한 사람은 신동운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배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동운은 일본 해군의 예과(항공병학교) 출신으로 7월 23일 경찰에 연행되

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할 텐가?”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신동운을 압박질렀다.

“좋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한 명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 무슨 조건인가?”

“범인 한 사람을 내어놓기는 하되 우리들끼리 기념사진을 찍은 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경찰은 사진사까지 동원했고, 범인은 한지근 한 명만을 연행해 갔다.

또한 김두한의 회고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백의사(白衣社) 사원 자격은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로 북한 괴뢰정권에서 가장 심한 학대를 받은 유족들로만 구성된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나는 남한 사람으로 단 한 사람의 고문이었다. 백의사는 결사대를 뽑았다. 당시 18세의 한지근 군이 선발되었다. 여씨를 사살하기 전날밤 나는 한군에게 권총을 수교하고 악수를 했다. 일본장교용 권총 한 자루를 내어주고 넘버를 내 수첩에 적어 놓았다. 얼마 후 나는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에게 불러갔다. 그분은 ‘죽이지는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저 혼만 내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끄럽지 않은가’ 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19세라던 한지근의 본명은 이필형(李弼炯)으로 나이는 21세, 고향은 평북 영변으로 20일 전 월남했었다. (『월간조선』, 「정치테러리스트 김지웅」, 1982년 12월호)

신동운은 함남 흥원 태생으로, 해방 후 오정방(일본 관동군 특무, 8·15후 건국청년회장)을 비애국자라고 저격한 장본인이다.

1974년 김홍성 등이 한지근의 공범이라고 자수했을 때 자기의 공을 가로채는 자들이라고 분개하다가 고혈압에 쓰러졌었다. 소생 후 침례교 목사가 되어 광신적으로 활동하다가 1982년 봄에 사망했다. 그는 생존시 하나님은 자기의 담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테러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몽양 살해범의 교사자임을 공언했다고 한다. 그는 대한에서 '한'을, 안중근에서 '근'을 따와 이필형을 한지근(韓智根)으로 개명해 줬다고 말했다.

'몽양 피격 서거'라는 홍보가 전해지자 친척과 동지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놀랐고 또 슬퍼하였다. 몽양의 시체가 안치된 인민당사에는 조객이 끊이지 않았고 조문과 조전이 잇달아 날아들었다. 각 정당·사회단체와 저명인사들로부터 조사와 조시 및 조가가 고인의 영전에 바쳐졌다. 각 신문들은 몽양의 생전 업적을 소개하고 찬양해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진보당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 사건개요

1956년 5월에 실시되었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수 906만여 표 가운데 이승만이 500여만 표를 얻었음에 비하여 조봉암은 216만표를 얻었으므로써 '정치적 비중'을 높였고 이승만 정권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1958년 1월 13일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검거되어 같은 해 3월 8일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조봉암은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 조봉암(1898 ~ 1959.7.31)

호 죽산(죽산). 독립운동가. 정치가
 1919년 3.1운동 참가
 1925년 조선공산당조직 참여
 1948년 제1대농림부장관
 1950년 제2대민의원
 1952년 제2,3대 대통령선거 출마
 1958년 '진보당간첩사건' 연루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

■ 조호정

1928년 출생
 조봉암선생의 장녀

아버님에게 씌워진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기고

조호정

저는 자유당말 부패와 폭정에 항거하다 정치적 음모에 걸려 간첩의 누명이 씌여진 채 억울하게 돌아가신 죽산 조봉암씨의 딸인 조호정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중국에 망명하셨을 때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부자 사이든 다 정답겠습니다만 저의 부녀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정답고 또한 파란도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일본경찰에 잡혔을 때 병든 어머니와 저는 일가 할아버님의 도움으로 강화로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여섯 살이었습니다. 당시 글을 모르는 저는 할아버님이 써 주시는 편지를 열심히 그려서 신의주 형무소에 계신 아버님께 띄웠습니다. 글을 익힐 때까지 이렇게하기를 여덟 해 만에 저의 부녀는 만났습니다.

그 후 인천에서 새 어머니를 맞아 남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출옥은 하셨어도 항상 일제의 감시가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도 항일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셨든 분이기에 감시는 이중으로 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되기 반년 전에 아버님은 헌병대 예비구금이 되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민족이 바라던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우후죽순같이 쏟아져 나온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로 말미암아 세상은 몹시 혼란하였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선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치안유지가 잘 되고 일인들에게도 사감으로 복수하는 일 없이 무사히 보내준 것도 저의 아버님이 사리 밝으신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은 맡으신 일에는 책임을 다하시고 불의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

는 성격이십니다. 그리서 6년간 정치생활과 2대 국회부의장으로서도 별다른 과오 없이 직무에 충실하셨습니다. 6.25 때만 해도 저의 아버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국회의 중요한 서류를 완전히 옮기시고 또 뒤처리를 하시느라고 결국 시간이 다급하여 저희들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아버님이 간첩으로 몰려 돌아가시다니 이 얼마나 암담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께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간수 부장이 ‘몸이 안좋으셔서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신지 50여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슴에 맺힌 한은 조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속수무책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멀지 않아 저 세상에 가서 아버님을 뵈올 때 못한 자식이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나왔다고 생각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지난 50여 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당시 5.16 군사쿠데타 이후 그 어지러웠던 소용돌이 속에서 저의 아버님의 복권 문제는 거의 금기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묻힌 망우리 공원 묘지에는 당국이 허가하지 않아 비석조차 세울 수 없었어요. 추모식을 벌이다.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묘지관리소 앞에서 닭장차에 실려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갈 때도 당국의 감시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버님의 명예회복 및 사면복권 탄

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사자에 대한 복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되었습니다.

1991년 13대 국회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등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조봉암 사면복권 청원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임기에 쫓겨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까 하고 마음 조리고 있었는데 마침 과거청산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놀랍고 반가워서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이 억눌렸던 분노와 사무친 한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님은 단순히 저만의 아버님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을 본 적도 없고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와 박해만 받으시던 집안 어른들께서도 그간 아버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인심이 야박하고 인륜도덕이 무너졌다고 합시다만 말하기 어렵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더욱이 해묵은 일을 거론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그것은 저의 가족뿐만 아닌 저의 아버님과 함께 하시던 수많은 동지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한 염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님은 간첩이 아닙니다. 꽃과 달은 보시면 세상사를 잠시 잊고 친구와 더불어 풍류를 즐기실 줄도 아시고 이웃의 딱한 일을 보시면 더불어 슬퍼하실 줄도 아시는 다정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또한 정치운동이란 것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이 주장하시던 평화통일론, 수탈 없는 경제정책, 책임 있는 혁신정치, 이 모든 것이 조금도 국시에 어긋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반공의 전초기지로서 혁신운동이란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어지러웠던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그 하기 힘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저의 아버님은 하셨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까지 나온 아버님의 정치행적과 사상을 불온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당시 2대에 걸쳐 의정에 참여하시고 국회부의장을 하셨습니다. 또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시고 재직 중에는 공출폐지와 농지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아버님 묘소의 비석에는 아직도 비문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던 조국에서 남이 아닌 동족의 손으로 합법을 가장한 정치적 살인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지난 50여년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세상에서 아버님을 뵈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씌워진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기고 묘소에 비석이라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리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여러분들이 풀어 주십시오.

■ 진보당 사건은 조작됐다

「동아일보」 1999년 8월 18일

당시 조사요원 한승격(韓承格)씨 증언

59년 죽산 조봉암(曹奉岩)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진보당 사건’은 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

그 동안 ‘진보당 사건’의 피해자와 학자들로부터 ‘진보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수사관이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조직부장 전세룡(全世龍·82·서예가)씨를 조사했던 한승격(韓承格·89)씨는 15일 전씨와 함께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한씨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죽산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씨가 진보당 사건의 조작 지시를 처음 받은 것은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57년 말. 당시 이승만 정부는 56년 5월 제 3대 대통령선거에서 엄청난 선거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이대통령과 대결한 죽산 조봉암이 260여만표(전체유효투표의 30%)를 얻는데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한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고위인사가 간부 몇 명과 한씨를 불러놓고 ‘경무대에서 조봉암을

그대로 두어서는 이대통령의 재선이 불가능하니 치안국이 책임지고 대책을 강구하라' 는 지시가 내려왔다.” 며 “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 당신들이 책임지고 조봉암을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말했다는 것. 한씨 등은 이때부터 시경찰국분실(일명 남일사)에서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포고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공산당 이론이나 북한 노동당 강령 드와 연계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58년 1월 이승만정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국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죽산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하고 그 해 2월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이듬해 죽산을 사형에 처했다.

한씨는 “ 당시 조직부장 전씨로부터 ‘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했다’ ‘ 죽산은 빨갱이 간첩이다’ 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3주 가량 혹독하게 신문했으나 자백을 받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한씨는 “ 수사 관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실대로 밝힐 경우 보복당할 수도 있어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며 “ 희생된 이들에게 사죄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뒤늦게나마 일조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함경북도 정평이 고향인 한씨는 북한에서 함경남도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내다 56년 남파됐으며 남파 직후 자수해 서울시 경찰국 분실에서 비공식 대공수사 요원으로 3년간 근무하다 사표를 냈다.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姜楨求)교수는 “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진보당사건이 이승만정권에 의한 법살(法殺)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정황으로만 추론해왔다.” 며 “ 당시 수사관의 이같은 증언은 물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 살인

■ 사건개요

5.16직후인 1961년 5월 19일 쿠데타 세력은 폐간 통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소위 혁명재판소는 이들 중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조용수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족일보가 혁신계 인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진보적인 주장을 펴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기사내용이 당시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논조가 많았고 오히려 당시 혁명세력이라 주장했던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정권은 부분적인 논조를 꼬집어 내어 용공으로 단정하고 엄청난 형벌을 부과하였다.

■ 조용수(1930 ~ 1961.12.21)

1930년 경남 진양군출생

1959년 죽산 조봉암선생 구명운동

1961년 2월 민족일보사 창간

1961년 6월 민족일보사 강제 폐간

1961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사형 집행 당함.

■ 증언자 조용준

1934년 출생

1961년 민족일보 기획부장

조용수 선생의 동생

5-16 군사 쿠데타 첫 번째 희생자 조용수

김 자 동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950년의 6·25 전란은 한국 전체를 암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의 광란 속에 멸공을 위한 행위는 모조리 정당화되었으며, 무고한 사람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재판 - 심지어 재판없이 처형되었습니다. 휴전과 더불어 대량학살은 중지되었으나, 인권이 무시되는 암흑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1960년 학생중심의 전국적 봉기인 4·19는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1961년 5월 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일부 군인들의 쿠데타로 이 나라는 제2의 암흑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 희생자가 《민족일보》 사였으며, 그 사장 조용수였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이틀 후인 5월 18일 무장 군인들이 《민족일보》사에 난입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 연행했습니다.

그 후 이들 중 대부분이 이른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 체포될 당시만 해도 이러한 엉터리 법마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군사반란집단은 이른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혁명검찰청'과 2심제로 끝내는 '혁명재판소'를 설립하고 이를 군사법정으로 운용했습니다.

여기서 조용수 사장과 더불어 안신규 및 송지영이 함께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의 재판장 김홍규는 육군대령이였으며, 법무사도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니다. 심판관은 군인도 있었으며 민간에서 차출된 판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이회창'도 당시 심판관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군사재판에 참여한 공적으로, 그 후 법조계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대법관의 대열에까지 끼었던 인물입니다.

조용수 사장 등에게 씌어진 죄명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1) 일본에 있는 북한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2) 반국가적 단체의 간부였다는 것입니다.
- 3) 이북괴뢰집단에 이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 지면을 통하여 이북괴뢰집단 주장내용에 적극찬동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죄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반론하겠습니다.

첫째, 군사정권에서는 이영근에게 간첩이라는 명예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에서는 그 후에도 이러한 수법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즉 해외에 있으며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여 귀국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간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사건에서 관계자들이 그 간첩의 지시 혹은 지원을 받았다는 상투적 수법을 이때부터 행사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이영근은 고 조봉암 선생의 비서로서, 이승만 정권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그 후 그는 그 곳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 구명운동 등 '반이승만 노선'을 걸어왔으며, 한때 많은 교포 청년들의 존경을 받았고, 조용수 사장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영근은 군사정권과 야합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간첩이었다고 매도했던 정권 하에서 VIP대우를 받으며 수시로 국내에 출입했습니다. 또한 박 정권의 지원으로 도

쿄에서 일간지까지 발행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노태우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추서 받았습니다. 이는 이영근이 북측의 간첩이 아님을 군사정권 스스로 시인한 것 입니다.

이어서 군사정권은 이영근이 조소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46,500,000원을 송금했다고 뒤집어 씌었습니다. 이또한 터무니없는 조작입니다. 우선 망명생활 중인 이영근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활과 활동비용을 도움받고 있던 처지였으며, 그런 그의 처지는 조용수 사장을 지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사장이 받은 돈은 민단계의 저명한 재력가인 박모가 보낸 것이며, 이영근 역시 박씨 같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돈 심부름을 했다는 조소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조소수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후, 즉시 그를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사건 조작에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을 고의로 도피시킨 것입니다. 당시 형편으로는 아무리 여권이 있더라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었으므로, 이것은 고의적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반국가 단체의 간부였다는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민족일보》를 반국가적 사회단체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종심인 2심에서는 “《민족일보》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사회단체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判示사실을 원판결 舉示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서 혁신정치운동과 본건 범행의 수단으로 민족일보사를 설립하여 판시범죄를 감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이상 피고인의 정당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의 소위는 결국 원판결 적용법조와 동일한 법조 하에 처단될 것이므로 前示擬律 착오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所論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상소 이유에는 관할권이라함) 인정에 있어서도 하등의 위법이 없

는 것이니 論旨는 모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조용수사장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이기는커녕 사대당의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 7·29선거당시 사대당 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출마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대당 준비위원회는 4분5열했습니다. 준비위에 참가했던 사람 중의 다수는 사회당과 통일사회당으로 쪼개져 나갔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사대당을 창립하는데 참여했으며, 이때 조용수 사장은 정당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족일보》가 범혁신계의 대변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혁신계의 양대 정당과는 교류가 있었으나 너무나 왜소했던 사대당은 사실 냉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용수 사장이 한때 준비위원이었던 사실을 가지고, 그 후에 생겨난 사대당에서 '주요간부'(직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였다고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면을 통하여 이북괴뢰집단의 주장 내용에 적극찬동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판결문에 “이북괴뢰집단의 주장내용과 상응한 한국의 중립화와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서신·문화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하는 등” 논평 19건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혁명재판소에서 지적한 내용은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에서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닙니까.

이상의 지적된 논설들을 검토해보면, 북측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정하고 현실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설 중에 61년 5월 11일자 「북한 정권은 먼저 민족자주정신에 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는 북한동포들에게도 “통일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발표”와, 활동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균형된 논조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어찌 북측주장에 대한 동조이며 상응한 주장만을 했다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지적한 《민족일보》의 19건 논설 내용은, 민족적 양심을 갖고 남·

북 어느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측주장 내용에 상응한다고 논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소위 혁명 재판소는 쿠데타의 산물인 불법단체로써, 일종의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권한도 없는데 처벌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도 멋대로 박탈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에서 지적한 세가지 주요 '죄목' 모두는 자신들의 법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는 분명한 '사법 살인'에 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후 《민족일보》의 자산은 아무런 법적조치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중앙정보부의 일부 사람들이 착복하지 않았나 믿어집니다. 그야말로 강도 집단의 행태인 것입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사법당국이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응분의 보상을 주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장길 조작간첩 사건

■ 사건개요

1970년 동경 엑스포 당시 부친의 초청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던 김장길씨가 안기부에 현행된 것은 1981년 5월 12일이었다. 그때부터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해 6월 25일까지 약 45일 동안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 조차 한동안 조작된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 증언자 김장길

1942년 경남 울주 출생(구속당시 만 39세)

東亞大學 卒. 사업(토목 광산용 기자재상, 전문건설업경영).

1981년 5월 12일에 연행되어 정식 구속일인 81년 6월 25일까지 불법 감금 45일. 징역 10년.

제발! 내가 간첩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다오

김장길

□ 간첩으로 조작된 경위

1942년 6월 17일 경남 울주군 온산면 강양리에서 2남 2녀의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김종호는 일제 때부터 선박의 기관장으로 일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일본으로 건너가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일본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출생지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가 고교를 마쳤습니다. 그 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향학의 길에 올라 동아대학 토목과를 졸업하여 모친과 동생들을 거두어 함께 살았습니다.

1968년 일본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일시 귀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대사관을 통해 고향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성금 등을 보내주어 울주군수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그 후 1970년 동경 엑스포 때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가 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면서 틈틈이 전자도장 기술을 습득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1972년 4월 경에는 고향 친구가 경영하던 토목 광산용 기자재 점포도 인수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8월 중순, 부친의 평소 지병인 악성 빈혈증이 재발,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 병원에서 간호하던 중 부친의 병세가 호전되어 약 20일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 지 약 7개

월 후인 1974년 4월 초에 부친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즉시 일본으로 가서 정성껏 간호했으나 보람도 없이 아버지는 1974년 5월 26일 동경여자 의과대학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 산천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일본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 뒤 부친의 재산을 정리하고 유골과 현금 등을 가지고 1974년 7월 13일 귀국하였습니다.

1981년 5월 12일 오전 10시경, 형사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산시 부전동에 위치한 극동개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방위협의위원과 새마을자문위원, 라이온스클럽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1달에 한번씩 서장을 비롯한 동장 등 지역 인사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역을 담당하는 형사들이 바뀌면 인사하러 찾아오는데, 그날 찾아 온 형사 2명도 바뀌어서 인사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급한 경리업무 서류를 처리한 뒤 사장실에서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찾아온 형사가 '사람을 찾는데 좀 도와 달라'고 하자, 내가 급히 출장을 가게 되어서 3일 후에 오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찾아온 형사가 자기들도 도저히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2시간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럼 2시간 정도로 끝나면 내가 도와 줄 수 있다고 하여, 걸어서 300m 정도 되는 주차장에 갔는데,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짚차를 타고 광안리로 이동하여 부산수산대 맞은편 육군인쇄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육군인쇄창은 당시 안기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건물 지하 1층 지하실은 양쪽으로 쪽 방이 있었는데, 제일 막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평쯤 되는데, 책상하나와 군용야전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높이 30cm 정도의 칸막이가 있었고,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자마자 안기부 수사관이 '일본은 몇 번이나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간적이 7-8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나지 않아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새끼 왜 빨리 말하지 못하느냐"며 갑자기 2-3명이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무방비상태에서 너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었고 그러다보니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계속되는 폭력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턱뼈가 일그러졌는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질문 하나에 대답이 늦게 나오면 무조건 폭행을 했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7-8명의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일주일동안 잠을 못자니 정신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하루에 2-3번 정도는 발가벗겨 놓고 고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용야전침대에 있는 각목을 빼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것, 발가벗긴 상태에서 손을 뒤로 하고 벽에 몸을 바짝 붙여 양 어깨를 대는데, 벽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못 버티냐며'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공포를 느끼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성기가 오무라드는데, 그것을 막대기로 푹푹 찌르면서 '이런 것으로 새끼를 만드냐'며 성기고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출장을 가는 편입니다. 가끔씩 변두리나 시골 터미널에 가면, 하트모양의 소변기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면 섬뜩섬뜩 합니다. 저는 원래 치질이 있었는데, 한 보름정도를 씻지도 못하게 해서 치질이 악화되고 터져서 냄새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안기부 수사관이 화장실로 데려 가더니, 하트모양으로 생긴 소변기위에 꼭지를 틀면서 물을 받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인간이 아닌 짐승같이 취급 했으며,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변기 물을 두 손으로 받아서 씻어야 했습니다.

처음 불법연행 후 20여 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쓰는데 불펜을 9자루나 썼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고 간략하게 적어서 넘겨주면, 거기에 빼와 살을 붙여 말을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겨주는 것을 내가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바로 폭행으로 이어

졌고, 안기부 수사관이 원하는 데로 진술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쓰는 일과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수시로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너를 죽여서 휴전선에 버리고는 월북하다가 총살당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살해 위협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렇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이 가한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 차례 자살하려고 그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벽에 온힘을 실어서 머리를 부딪쳐 봐도 벽에는 아주 두꺼운 스폰지를 넣고 비닐레자도 덧 씌어 놓았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내가 허위로 자백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나에게는 부인과 자식으로 2남 2녀를 두었는데, 당시 8살·7살·5살·2살 이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이 '니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니 부인을 데려다가 너와 똑같이 발가벗겨서 고문하고 니 애들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두 차례 정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에 전화를 해 통화하게 해주었는데, 이때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내용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몸 건강히 별일 없이 잘 있으며, 곧 집으로 갈 것이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죽어도 되지만 가족들만이라도 나와 같은 고문을 당하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간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1970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놀러온 박상용을 만났고 외5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박상용이 놀다가 돌아간 후에 아버지께 그의 직업을 물어 봤더니 한참 생각하시다가 경상도 말씨로 "글마 놈팽이 아이가"라고 하시면서 직업도 없이 깡패 짓하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도박이나 하는 막가는 인생살이를 하는데 가끔 용돈이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와서 노무자 십장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시 안기부에서는 한번 만난 것으로는 간첩을 만들 수 없으니 첫 번째 만

나 포섭되고 두 번째 만나 지령을 받고, 세 번째 만나 지령받은 내용을 보고하고로 꾸며 간첩행위를 성립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박상용을 1970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외에는 절대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 조작된 간첩혐의

나에 대한 간첩혐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970년 일본에 처음으로 갔을 때 조총련계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있던 외5촌 박상용을 만나, 아버지를 국내로 초청하는 문제로 박상용으로부터 용돈과 사업자금을 얻어 포섭되었고,
- ② 그로부터 공산주의 이념과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후 지령을 받고 귀국했으며,
- ③ 1973년, 1974년의 2, 3차 일본으로 갔을 때에도 박상용을 만났고,
- ④ 경남 거제군 소재 옥포조선소 건설 현장을 촬영하여 국가 기간산업 기밀을 누설, 간첩행위를 하며 잠복하고 있던 단독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물적 증거로서 압수된 것은 『카메라 1대』와 『옥포조선소 건설현장 사진 1장』이었습니다. 조선공사 현장사진은 당시에 사업상 증장비기계(이하 중기)를 등록할 때는 중기사진을 첨부해야 했는데, 중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중기를 찍은 사진으로 기억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국이 간첩을 발표할 때 일상적으로 제시하는 '난수표, 공작금, 총기류, 무전기' 등은 물론 없습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조작입니

다.

무엇보다도 물적 증거가 카메라 1대와 옥포조선소 건설현장 사진 1장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간첩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기부와 검찰에서 내가 간첩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조목조목 말하겠습니다.

▶ 먼저, 아버지 김중호가 과거 일본으로 가기 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에 지서장을 지낸 경찰관이었던 차문철을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그는 공판정에서 저의 아버지 『김중호가 좌익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김중호가 좌익 활동을 했다면 경찰이나 기타 정보기관에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 검찰은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주일대사관의 조희서에는 김중호가 『상당한 재산을 모은 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동경에서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 박상용이 과연[제일 조총련계열에 속해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가?

공소장은 박상용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판결문에서는 [조총련 계열에 속해 있는……사람이라고 추측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박상용을 조총련 계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의 명칭과 정체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사에게 박상용이 조총련이라는 근거를 붙이라고 하자 2주후에 붙이겠다고 하면서 1심 재판기간인 6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도 박상용

이 조총련이란 증거를 대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가 무기징역이라고 애들 장난처럼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심 6개월이 되는 다음날 판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교도소를 돌아온 다음날 판결을 받으러 갔을 때는 나의 재판을 오래토록 지켜본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지금 까지 많은 재판을 지켜보았지만 김선생같이 증거 없는 재판은 무죄”라고 하면서 “오늘 무죄로 집에 돌아가면 서면(지명)에서 술이나 한잔씩 하자”는 농담도 하면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영터리 주심판사 안문태는 저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을 선고하였고 재판정에서는 “영터리 재판이다”라는 야유와 고함소리 속에 1심 재판의 막이 내렸습니다.

▶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했을 때인 1973년과 1974년에 박상용을 만났을 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계모 박복선이 마침 한국에 왔다가 아버지 산소도 둘러보고 일본으로 가기 전에 김해공항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어머니(박복선)를 연행하여 박상용을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 어머니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진을 내 보이면서 이 사람을 모르겠느냐고 해서 한참 들여다보니 일본 이름으로 ‘아라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가 회사 운영할 때 노무자 십장을 한 적이 있고, 장길이 일본 처음 왔을 때 우연히 놀러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수사관들이 질문을 하고 오래된 내용들을 물어서 진땀이 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몰라서 수사관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서 어머니께 읽어줄 때 어머니가 시인한 것만 읽어 주기에 한글을 모르니 확인도 못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머니의 진술서를 조작하여, 나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 너의 계모(박복선)는 1973년, 1974년 일본 갈 때마다, 박상용이 찾아와서 너를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같이 자고 들어올 때도 있었고, 박상용이 조총련에 몸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진술하였는데, 넌 왜 거짓말 하느냐”며 발가벗겨 놓고 온갖 고문과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싸인을 강요하니 조작된 어머니 진술

때문에 고문을 견디지 못해 박상용과 만났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말한 일본에서의 행적관계는 전부 박상용과 같이 다니면서 틈틈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우월성, 우리 한국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악랄한 비판 등으로 동조·포섭되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얻어온 돈은 전부 박상용에게 받은 것으로 하여 수사관들이 작성해 주는 대로 자필로 자술하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께서는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자, 어머니께서는 안기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할마씨, 여기서 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마라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다시는 한국으로 나올 생각을 말라, 만약 한국에 나오면 장길이도 죽고, 할마씨도 죽는다. 일본에 있는 두 딸도 영원히 보지 못한다”며 협박을 주어서 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일 변호사와 저의 처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 고등법원 2심 때는 계모께서 일본에서 나와 증언대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합의부재판장 이원섭(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은 판사 아래 책상에서 기록하는 사람을 불러 “지금 증인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적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전두환군사정권이 반공을 앞세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슬퍼런 시대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어머니의 증언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 옥포조선소의 사진을 찍거나 그 건설계획을 탐지해서 누설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자기들의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옥포조선소 건설계획은 1974년 6월에 1차 수정을 거쳤고 1975년 이후에는 모두가 변경되었는데, 나의 자백으로서 1974년 4월초까지 탐지했다는 계획이란 그 당시의 것이 아니라 1975년 이후의 설계변경된 건설계획과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기간, 부지면적, 공사금액, 도크규모, 조선능력, 외국인 용역회사, 크레인의 규모와 설치금액 등 그 모든 것이 내가 소위 「탐지」 했다는 1974년 4월 초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포조선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하단 전체를 조감도와 아울러 공사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속해서 광고 선전하였으며 조선소 공사장 정문에는 가로3미터 세로 4미터의 조감도를 상세히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간첩했다는 바로 그 내용들이지요.

이것은 하지도 않은 「탐지」를 조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적당히 자료를 구해다가 베껴 놓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검사는 이것을 자인하고 공판 도중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이 부분 내용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 이밖에도 몇 가지 논점이 남아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박상용으로부터 소위 「지령」을 받았다는 1974년 이후 연행될 때까지의 만 7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 공소장은 아무 것도 언급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내는 「10년 동안 잠복하고 있던 간첩이라면 왜 한 사람의 동조자도 없었으며 동조 용의자도 없었습니까?」라며, 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434명이 김장길은 선량한 시민이며 결코 간첩이 아니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1970년에 단 한번 박상용을 만난 사실 한가지만을 시인할 뿐 그 외의 공소사실은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안기부 조사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경위는 당시 나를 수사한 안기부 직원이 항상 검찰청에서 입회한 가운데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할 때의 공포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에 갔을 때 담당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와서 ‘수고가 많다며’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굶신거리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과 협박을 당했으면 변호사가 와서 1차면담을 하는데 변호사에게도 간첩혐의에 대해서, “모두 사실입니다.” “절대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변호사 접견 때도 변호사가 나는 당신을 도울 사람, 당신의 억울함을 다 변호할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안기부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내가 안기부 조사실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할 경우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다름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검찰조사 당시 안기부 조사내용을 계속 인정하다가, 아내의 끈질긴 면회 요청으로 검사실에서 아내와 만났었고, 아내가 “당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다. 자식들에게까지 간첩이라는 죄를 남겨야 하느냐, 재발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말해 달라”며 이야기 하여, 아내를 만난 후부터 내가 간첩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담당검사가 “이것들이 불쌍해서 만나게도 해주고, 애들 4명하고 살게도 하고, 면회도 가끔씩 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구만.”하면서 발길질을 하며 나를 교도관들에게 끌고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3차 변호사 접견 때부터 비로소 억울한 사정을 모두 변호사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당시 김광일 변호사는 나의 간첩혐의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120% 무죄라고 했으며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고, 나를 보호해 다니던 교도관들도 “선생님의 재판을 꼭 지켜본 결과 증거가 없으니까 곧 풀려나가겠네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는 안기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문과 진술강요가 있었습니다. 간첩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그 때마다 슬리퍼를 벗어서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인하면 안기부로 다시 보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협

박도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박상용이 조총련이란 것을 증명할 근거를 검사측에 요청을 하면, 담당검사는 계속 재판을 연기 또 연기를 해서 1심재판 기간인 6개월까지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검사는 간첩혐의에 대한 물증이 나오지 않게 되자 “안기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나중에 나에 대한 간첩혐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새로운 진술서를 작성하자”며, 법정에서 간첩혐의를 부인하지 말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검찰수사에서 안기부 조서를 모두 시인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검사는 재판 마지막 부분에 “더 하고 싶은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나는 검사의 약속을 믿고 “차후 문의하시는 대로 다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검사와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10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의 선고도 그대로 10년 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10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군사정권들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수많은 착한 민중을 짓밟고 학대하며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만들었고,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과 민중들을 그들의 주구들로 하여금 군화발로 또는 고문으로 짓밟아 왔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을 봤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에게 간첩혐의를 조작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시로선 남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를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문으로 시작하여 부산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또 그곳에서 안동교도소로, 아무런 지은 죄도 없이 0.78평의 어두운 방에서 9년여의 청춘을 보냈습니

다. 나의 이 간첩누명과 지나간 청춘을 국가는 꼭 밝혀주고 보상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왜 내가!! 간첩혐의로 구속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는지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만이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기부 고문수사관

당시 나를 고문했던 안기부 수사관들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얼굴을 보면 당장이라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과장은 조사실을 들어올 때마다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진실을 말하라며 구타를 가하였는데 복장은 양복차림이었고, 나이는 50대 후반, 키가 165cm이며 서울말씨를 썼습니다. 정선생이라는 계장은 호리호리한 체형에 입술이 파랗고, 키는 170cm정도 되었으며, 충청도나 경기도 말씨를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선생이라고 불리는 고문수사관은 165cm 정도의 키에 눈에 선명한 쌍꺼풀이 있고, 집이 부산 '조선방직(조방)'쪽에 있다고 하였고 경상도 말씨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많은 구타를 한 고문수사관 강신원은 눈이 크고 덩치가 좋고 키가 180cm정도였고, 고향이 진주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했습니다. 이름과 성은 모르지만 가장 악질적인 고문수사관은 얼굴이 곰보였습니다. 또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은 2명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 때 들은 얘기로는 그들 수사관들은 나를 조

작간첩으로 만들어 놓고는 간첩 잡았다고 보상금을 받고 특별휴가도 가고 진급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국가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마 눈을 못 감고 죽을 것입니다. 민주화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국가는 저를 비롯한 많은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 사건개요

1986년 12월 일명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37일간 안기부에 불법 감금된 채 지하복도 심문실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받았다. 안기부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려 고문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을 기점으로 당시 문익환, 백기완, 계훈제, 이소선, 이창복 등 소위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재야세력들을 모두 간첩으로 엮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더욱 더 이를 악물고 고문을 견뎌야 했다.

■ 증언자 심진구

1960년생(구속당시 만 26세).

1986년 12월 10일에 안기부로 불법, 연행되어 37일간 각종 고문을 받음

1987년 집행유예 출소

간첩소리 나올 때까지 더 족쳐!

심진구

□ 1986년 12월 일명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37일간 안기부에 반인륜적 고문을 당한 경위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일찍 눈을 떠 사회과학서적에 심취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전방에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다시 구로, 안성 등지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우연히 서울대에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 이00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와 이00씨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로 구로에 있던 이00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강철 서신'으로도 잘 알려진 김영환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 공안당국은 김영환을 체포 수사하게 되었고, 안기부는 내가 작성해 김영환에게 보여주었던 '선진적 노동자의 임무'라는 문건과 평소 대화 내용 때문에 주체사상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론을 김영환에게 전파한 주인공으로 나를 지목하였습니다.

이것이 1986년 12월 일명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37일 간 안기부에 불법 감금된 채 각종 고문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식을 올린 지 채 한달도 되기 전인 86년 12월 10일, 시흥 7동 대로변에서 강제 연행되었고, 남영동 안기부 지하복도 심문실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익환, 백기완, 계훈제 선생을 간첩혐의로 엮으려

안기부의 고문과정에서 정형근 단장과 만난 것은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이브 전인 22일 경,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단장이 고문을 받고 있던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6명의 부하들이 심문대 책상을 둘러싸고 심문조서에 손도장을 찍어라, 찍어라 하며 내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마도로스 담뱃대를 입에 문 정형근 단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하들이 순식간에 양쪽으로 세 명씩 일렬로 서 차렷 자세로 허리를 굽히자, 정형근은 이들을 향해 “뭇들 하고 있는 거야! 15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간첩이라고 불지를 알아?”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정형근은 담배연기를 한 모금 내뿜더니 “심진구, 이제는 간첩이라고 불 때가 됐는데. 여기 잡혀오면 15일 이내에 다 불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국회의원도 잡아다 쥐 패는 곳이야. 간첩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죽어. 네가 뭘데 고등학교 밖에 못나 온 안성 촌놈(심씨는 어려서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자랐다.)이 서울에 올라와 문익환, 계훈제 야당놈들과 박영진(1986년 임금투쟁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 장례 싸움을 걸어? 네가 뭘데 총대를 매! 아무래도 이상해. 고등학교 만 졸업한 놈이 아는 게 너무 많아, 너 어릴 때부터 포섭됐지. 너 북에 갔다 왔지?”하면서 “간첩소리 나올 때까지 더 죽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과 대머리에 눈이 치켜 올라간 부하가 몽둥이로 내 가슴을 후려 쳤습니다. 내가 심문대 책상 뒤로 넘어지자 6명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구둣발로 머리를 짓밟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몽둥이로 난타하더니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긴 채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는 6명이 교대로 두들겨 패대는데 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온몸을 타

이어처럼 등그렇게 말면서 심문실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고,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심문실 바닥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내 발목에 묶인 수갑을 풀고 “일어서! 일어서! 새끼야!”하며 벽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나에게 “일보 앞으로! 일보 앞으로!”하면서 심문대 책상까지 다가오게 하였고, 나의 성기가 심문대 책상에 걸쳐지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몽둥이로 툭툭 치면서 “이것 아직도 살아 있구만”하더니 1미터 정도의 길이의 몽둥이로 내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철제 심문대 책상 앞으로 고꾸라지자 이번에는 뒤에서 어깨와 머리를 쳐 뒤로 젖혀지면 또 앞에서 성기를 내려치기를 수십 차례, 나는 대들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개새끼들아! 차라리 죽여라, 죽여! 제발 죽여다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나는 몸동아리 하나로 먹고사는 ‘노동자’로서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고민했다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안기부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려 고문·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나 자신을 기점으로 당시 문익환, 백기완, 계훈제, 이소선, 이창복 등 소위 군부독재의 ‘반체제 인사들’로 알려진 재야세력들을 모두 간첩으로 엮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고문을 견뎌야 했으며 해고 당한 아내 걱정 에 내보내 줄 것을 간청했지만, 정형근 단장은 “아직도 멀었구만, 간첩이라는 소리를 낼때까지 더 죽쳐!”라고 오히려 고문을 독려했습니다.

월북루트로 변한 지도그림 한 장

더욱이 군대시절 전방 근무의 기억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이 경기도 안성 본가에서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월북루트 지도’라며 제3자를 대동, 이

복에 갔다 왔다는 식으로 몰아 붙였고 급기야 TV 카메라에 한번만 출연해 간첩임을 보여 달라는 협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지하복도 중앙 근처에 있는 샤워실로 끌고 가더니 온몸에 범벅이 된 피를 물로 씻어내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지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은 정형근 패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가혹한 민족의 운명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눈물과 핏물은 수돗물과 섞이며 남산 지하 하수구를 소용돌이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87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대우가 달라져 구치소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영향 때문임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5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7일간의 악몽같은 고통은 고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로서 유일한 경쟁력은 육체뿐인데 외형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골격이 상하고 모세혈관이 터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서 주위로부터 받는 "빨갱이" 놀림은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막내 동생은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고, 아버지는 현재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문 당한지 20년이 됐지만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안 신경증, 만성두통, 근육·신경통 등 고문후유증이 더 심해지고 있고, 또한 모세혈관이 파괴돼 걸을 때마다 마비와 통증이 오고 일하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해서 주저앉고 가슴이 답답하고, 뒷골이 쭈시고 불면증과 고문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반인륜적인 고문가담자들을 공개 수배합니다.

최근 고문피해 증언이 잇따르면서 고문을 지휘했던 정형근 의원이 일말의 반성은 커녕 오히려 날뛰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고문당했던 당시 상황이 떠올라 고통스럽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된 나를 짓밟고, 물고문을 하고, 성기고문을 가하던 안기부 고문 수사관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거친 일을 하며 사느라 손이 굳었지만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서서히 손이 풀리면서 고문을 전담했던 수사관 4명과 고문을 지휘하던 정형근 의원의 30대 후반 모습을 몽타주로 그렸습니다. 이 몽타주를 완성하는데 1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일명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을 담당하던 안기부 수사관들 가운데 실장, 계장, 대리로 불리던 간부급 3명 등이 37일간 나를 담당하면서 가장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집중적으로 고문이 가해질 때 나타나 교대로 고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20대 중반의 여성요원도 1명 있었는데, 주로 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문가담자를 세상에 알리고 고발하기 위해 2005년 1월 13일 밤을 새면서 마도로스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안기부 수사단장 시절의 정형근 의원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당시 정 의원은 분명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는 처벌하거나 응징하기 위해 고문 수사관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고문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는 정 의원의 뻔뻔스러운 행위와 반인륜적 고문을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문 수사관들에게 호소합니다. 정형근 의원이 “간첩이라고 불 때까지 족쳐라”고 말하며 고문을 직접 지휘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 범죄이며 고문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 의원이 고문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20년 전 나를 고문했던 안기부 수사관들은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이었고, 이들의 현재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수사관들은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 등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신 짐승 이름을 붙여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고문 수사관의 특징을 따 ‘여우’(실장), ‘불독’(계장), ‘독사’(대리), ‘곰’(심리요원)’이라고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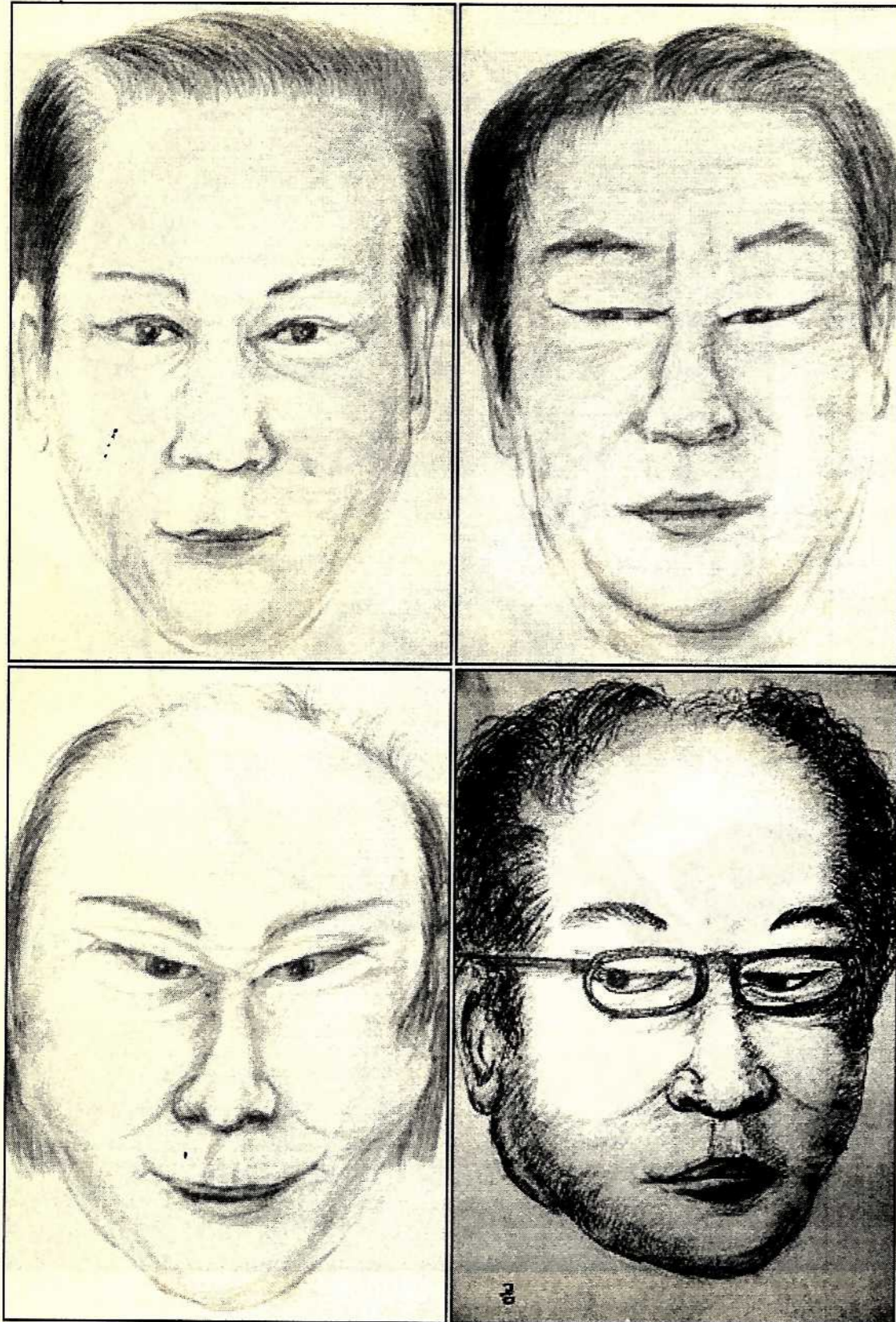
코와 입 모양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징은 실물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가발을 쓰거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인상착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나타나 죄를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에게도 이들에 대한 제보를 <오마이뉴스>를 통해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 정형근 당시 안기부대공수사단장



1980년 7월 22일경, 서울특별시에서
취재한 정형근 당시 안기부대공수사단장

■ 성명미상 고문수사관 4명의 몽타주



■ 고문수사관 4명에 대한 인상착의와 특징

여우 : 고문 수사관 중에 직위가 가장 높았으며 운동노선 이론에 밝았다. 부하들이 '상무' 라고 불렀지만 나는 '여우' 라고 별칭을 정했다. 여우는 '독사' 와 '불독' 에게 '군복 벗겨, 팬티 벗겨, 발목 손목 수갑채워', '머리, 가슴, 무릎 처' 등 신체부위까지 지목하며 고문을 지시했다.

▲특징 = 턱이 뾰족하고 코가 우뚝하며 쌍꺼풀이다. 미남형이며 머리 곁을 단정하게 빗고 다녔다. ▲당시 나이 = 40대 후반(현재 60대 후반) ▲신장 = 1m76cm 정도 ▲체격 = 마른 편 ▲직책 = 실장(정형근 단장 바로 밑) ▲말투 = 서울 말씨

불독 : 몸이 뚱뚱하고 얼굴에 살이 많이 쪼 '불독' 이라고 별칭을 붙였다. 고문 받던 도중 허벅지에서 진물이 흐르자 불독이 몽둥이로 허벅지를 쭈시면서 '네 집안 조사했는데, 너는 몸뚱이 밖에 없는 놈 아니냐. 몸뚱이 썩기 전에 붙어라' 며 족쳤다. 불독은 '내 동생이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 의사' 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특징 = 눈두덩이가 두껍고 눈과 눈썹사이 그리고 이마와 눈썹 사이가 넓었다. 눈이 가늘고 길었으며 얼굴이 사각형이고 살이 많았다 ▲당시 나이 = 40대 중반(현재 60대 중반) ▲신장 = 1m75cm 정도 ▲체격 = 뚱뚱한 편 ▲직책 = 계장(구 계장이라고 불리기도 함) ▲말투 = 경상도 말씨

독사 : 그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인간이 아니라 살모사 독사' 라는 생각이 들어 '독사' 라는 별칭을 붙였다. 다른 수사관들은 한 두 시간 정도 고문하면 스스로 지치는데 독사는 지치지 않고 계속 고문했다. 독사는 86년 12월 10일 저녁 5시 해질 무렵, 서울 시흥본동에서 나를 불법 체포할 때 수사관 3명 가운데 1명이다.

▲특징 = 대머리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입술이 얇으며 입꼬리가 치켜 올라감 ▲당시 나이 = 40대 중반(현재 60대 중반) ▲신장 = 1m70cm 정도 ▲체격 = 마른 편 ▲직책 = 대리(추정) ▲말투 = 경상도 말씨

곰 : 몸이 뚱뚱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 '곰' 이라고 별칭을 붙였다. 곰은 위협했다가 달래는 등 심리전을 펼쳤다. 곰은 '하나님의 품에 왔으니 다 이야기하면 용서받

을 수 있다', '같이 기도하자'며 진술을 유도하는 등 심리요원으로 파악됐다. 고문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지만 온 몸이 찢겨져 야전침대에 쪼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데 갑자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특징 = 안경을 썼으며 머리칼이 곱슬머리고 코는 주먹코, 입술이 두툼, 특히 볼이 만두처럼 튀어나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신장 = 1m70cm 정도 ▲체격 = 뚱뚱한 편 ▲말투 = 경상도 말씨

□ 고문가담자들을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이듬 해 1월 15일 구치소로 옮겨질 때까지 37일 동안 내가 당한 살인적인 고문에 대하여 2004년 4월 1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안기부 수사관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 20세기 말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대두되는 21세기 초에도 반성은커녕 민의를 대변 한답시고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 단장이었던 정형근 의원을 비롯한 그 부하직원 11명을 상대로 고문사실 내용서와 진단서 1부, 수용증명서 1부, 증거물보존신청서 1부, 관련 사진 4매를 첨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고검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16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김영일·김효중·이상경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일 헌법재판관 등 3인은 “시효적용이 배제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인 고문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써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로서의 고문(제7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 것”이라며 “위 고소사실이 로마규정에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국제관습법에 모든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헌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위 고소사실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형근 등의 고문행위는 국제법상의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됩니다.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전기고문, 물고문 등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가해진 고문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고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권력 차원에서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과 고문을 공공연히 자행하였으며 박종철군도 그때 사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신장을 요구하는 법 양심을 따르기보다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 배제돼야

반인륜, 반국민, 반가정적 고문시행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문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으로부터 완쾌된 후부터 가정적 사회적 모든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된 후부터나 법적시효를 운운해야 합니다.

나는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 기관이 반인도적인 범죄를 외면한 만큼 정형근 의원 등 고문수사관들을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숨겨진 고문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고문범죄는 진실이 밝혀지면 언제든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이 있음에도 국제법을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형근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는 각 7년 이하의 징역, 독직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99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정형근 의원을 고발하지 못한 것은 공소시효 기간내에 정형근이 안기부 수사단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를 고소하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정 의원은 1996년 국회의원에 진출해 불체포와 면책특권을 이용해 고문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나를 비롯해 구미유학생 간첩사건(85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89년), 화가 홍성담 사건(89년),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91년),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92년), 김낙중—손병선 간첩사건(92년) 등 굵직한 공안 사건에 당시 안기부 수사단장·국장으로서 관여해 왔으며, 이들 조직 사건 관련자들은 정 의원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형근은 이 폭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문주장이 사실이라면 일체의 공직에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은 삼천리강산에 새해 새날이 밝아 올 때마다 정형근 의원에게 “역사와 민족이 발전하는 힘의 원리를 알고 동참하여 과거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형근 의원을 비롯한 고문가담자들은 허심탄회하게 고문을 지휘했고,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하고 간첩으로 모는 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독재의 칼을 휘둘러보려는 과욕을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야만적 권력욕을 못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현명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험난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문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비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은 하늘만이 압니다.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하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문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05.1 .25. 14:0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http://www.kangci.net>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법국민위원회 <http://ktruth.org>

주관 : **계승연대 의문사건진상규명특위** <http://truth.jinbo.net>